

지만 통상적인 침윤성 유관암에 비해 예후가 좋다. 따라서 수술 전에 진단할 수 있다면 환자의 치료 방침을 정하거나 예후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임상적으로 유방의 종괴를 평가, 진단할 때 흔히 세침 흡인 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지만 수질암의 경우 세포학적 소견이 다양할 뿐 아니라 드문 질환이어서 보통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저자들은 좌측 유방에 발생한 수질암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55세 여자로서 내원 1개월 전부터 좌측 유방 및 액와부에 간헐적 동통이 있었으며 10일 전부터는 좌측 유방에 종괴가 만져져서 내원하였다. 종괴 주변에 약간 붉은 색으로 피부 변색이 있었으며 압통을 동반하였다. 세침 흡인 검사상 성근 세포군집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구성 세포는 섬세한 세포질을 가지는 중등도 크기의 악성세포로서 다양한 모양의 핵과 뚜렷한 핵인을 보였다. 비정상적 세포분열이 흔히 관찰되었고 자주 나핵(BPA6)이 있었으며 배경에 다수의 호중구와 약간의 백혈구 및 형질세포가 관찰되는 점이 통상적인 침윤성 유관암과 다른점이었다. 수술후 전형적인 수질암으로 확진되었다.

## 8. 유방의 세침 천자 세포학

조경자, 하창원, 고재수, 장자준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

유방 병변의 세포학적 진단은 현재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조직학적 소견과의 상세한 대조 연구는 흔하지 않다. 1991년 10월부터 1992년 3월까지의 6개월간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에 의뢰된 유방의 세침 흡인 세포학적 표본 290예 중 조직학적 진단이 이루어진 106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다.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악성 종양 53예는 모두 침윤성 도관암으로서 그 중 37예가 명료하게 악성으로 진단되었고, 10예는 비정형성 세포 혹은 비정형성 상피 증식으로 underdiagnosis 되었으며, 6예는 표본이 부적절하였다. 검토 가능했던 36예의 악성 표본에서 그 세포학적 소견은 다소의 변동을 보였다. 세포 집단의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가 26예였고 이 중 19예는 세포 배열이 성글었으나 7예는 매우 촘촘하였다. 10예는 가장자리가 둥글고 매끈한 일반적 선암의 소견을 보였다. 흩어져서 나오는 개개의 악성 세포의 빈도도 변화가 많아 15예에서는 현저하였으나 7예에서는 불분명하였다. 반면 세포충실성은 대개 높았으며 배경이 괴사성 및 출혈성인 예가 많았다. 이와 같은 다소의 차이점을 조직학적 소견과 연결시켜보기 위하여 종양을 조직학적으로 scirrhous, solid-tubular, papillo-tubular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해보았으나 scirrhous type 21예, solid-tubular type 13예 및 papillo-tubular type 2예에서 유형에 따른 세포학적 소견의 차이는 없었다. Underdiagnosis된 악성 종양 10예 중 5예는 변성이 심하였으나, 세포 성분이 많고 분리된 세포가 나오는 등 악성의 소견을 시사하고 있었다. 3예는 세포의 수는 적지만 상당한 이형성을 보여서 역시 악성을 시사하였다. 나머지 2예는 재검색 결과 악성 세포학이었다. 반면 53예의 양성 병변 중 11예가 비정형성 세포로 overdiagnosis 되었으며, 이 중 6예는 역시 변성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도 재검색 결과 양성 세포학의 특징인 이극성 나핵이 4예에서 관찰되었다. 3예는 확실한 비정형성 세포들을 보였고, 이들은 모두 상피의 증식을 동반한 섬유낭포성 질환이었다. 1예는 심한 염증에 동

반된 재생 세포가 대단히 큰 핵과 핵인을 보였다. 나머지 양성 병변 중 29 예는 양성으로 진단되었고, 부적절한 표본이 악성에서보다 많은 14 예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침윤성 도관암의 세포학적 소견에는 변동이 있으나, 이것이 조직학적 유형과는 관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비정형성 세포가 보이는 불확실한 표본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면 악성 또는 양성의 특징을 찾아내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9. 유두상 림프종성 낭선종의 세포학적 소견 Cytologic Features of Papillary Cystadenoma Lymphomatousum (Warthin's Tumor)

김남훈, 박찬금, 이종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Papillary cystadenoma lymphomatousum (PCL)은 1929년 Warthin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된 종양으로 특징적인 임상 및 조직학적 소견과 아울러 그 흡인 세포 도말소견도 매우 진단적이다. 이 종양은 남성에 호발하여 대개 다발성이다. 10~15%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하며 거의 대부분 이하선에서 발생한다. 저자들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세침흡인 세포학적 검사로 진단되고 적출 후 조직학적 검사로 확인된 PCL 4예의 흡인세포학적 소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남성이 3예, 여성이 1예였으며 평균연령은 57세였다. 3예가 이하선, 1예는 악하선에서 발생하였으며 모두 단일성 그리고 단측성으로 발생한 종양이었다. 4예 중 3예는 흡인 세포도말검사상 PCL로 진단하였으나 1예는 남성액만 도말표본에서 관찰되어 진단할 수 없었다. 진단가능한 3예는 중등도 내지는 고도의 세포 성분이 도말되고 도말 배경은 과립형의 남성액 및 적혈구와 함께 다수의 림프구가 혼재되어 관찰되었다. 이와 아울러 판상의 군집을 이루는 상피 세포가 관찰되었다. 종양 세포는 둥글거나 난원형 또는 다각형이었으며 그세포질은 호산성이며 과립성이었다. 핵은 비교적 균일 하였으나 간혹 그 크기의 다양성이 관찰되었으며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았고 섬세한 염색질을 갖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포말성의 세포질을 갖는 상피 세포도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PCL은 매우 진단적인 흡인세포학적 소견을 보이는 종양으로 고형성 부위에서 흡인 도말된다면 100%의 정확한 진단율을 보이는 종양으로 생각된다.

## 10. 구개 침샘에서 발생한 다형성 저악성 선암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Cytologic Features of Polymorphous Low-grade Adenocarcinoma of Palate

박찬필, 박문향, 이종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다형성 저악성 선암종(polymorphous low-grade adenocarcinoma, PLGA)은 대부분이 작은 침샘